

지난해 2400만명 전남 방문... 글로벌 마케팅 강화

빅데이터연구소 분석 서울 거주자 여름 휴가지 전국 3대 명소 꼽혀 '방문의 해' 2년차...서울 페스티벌·누리소통망 인증샷 이벤트 등 풍성

전남도는 '2022-2023 전남 방문의 해'를 맞아,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여름 휴가지 전국 3대 명소로 꼽힌 것을 바탕으로 올해는 페스티벌과 아이돌 등 유명인을 활용한 다양한 마케팅으로 세계적 명품관광지로 우뚝 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전남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한 관광산업 회복을 위해 2022-2023년을 전남 방문의 해로 정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했다. 그에 따라 신한카드 빅데이터연구소의 고객 결제정보 1억

5000만 건 분석 결과 서울 거주자 여름 휴가지에서 전남이 전국 3대 명소로 꼽혔다. 여수시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1000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했고, 전남도는 2022년 한 해 2400여만 명이 다녀가 코로나 이전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다. 전남도는 올해 서울 페스티벌과 팻 페스티벌, 남도 숙박 할인 빅이벤트와 관광지 누리소통망 인증샷 이벤트 등 더 다양한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 중 서울 페스티벌은 서울, 경기도는 물론 전

국민의 관심을 모으기 위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에 맞춰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개최한다. 22개 시군의 관광홍보전을 함께 개최하고, 올해 전남에서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4-10월)와 국제수목비엔날레(9-10월), 국제농업박람회(10월), 101회 전국체전(10월) 등 4대 대형 행사도 홍보한다. 팻 페스티벌은 반려가족 1천만 명시대에 가족같은 반려동물과 함께 갈 수 있는 전남 여행지를 소개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즐겁게 여행하며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지식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내 관광객 대상이었던 남도 숙박할인 빅이벤

트는 해외 관광객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관광지 3개소를 방문하고 인증샷을 올리면 참여가 가능했던 누리소통망 인증샷 이벤트도 관광지 1개소 방문으로 완화하는 한편 남도장터 상품권과 블루투스 스피커 등 상품도 다양화한다. 남도여행 으뜸상품과 전남으로 체험가자, 남도여행 플래너 등 여행사 인센티브와 관광객 체험비 지원도 강화한다. 홍보활동은 엠지(MZ)세대 트렌드에 맞춰 온라인에 집중한다. 국내 방송사의 다큐, 교양 등 채널을 이용해 전남의 역사, 문화, 관광지를 소소하게 소개하는 방식으로 선호층을 파고들고, 영어권 영국남자, 스페인어권 잭스코리아나 등 언어권별 해

외 유명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누리소통망 홍보에도 나선다. 20-30대 관광소비층으로 팬덤을 보유한 갓세븐의 뱀뱀 등 아이돌 스타를 활용한 누리소통망 홍보 영상도 제작해 태국 등 동남아를 겨냥한다. 김기흥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아 더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유명인을 활용한 홍보로 전남 관광을 세계적으로 알리겠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명품 속소확장과 권역별 관광명소 조성, 스마트 관광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전남을 세계적 명품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고향 쌀 애용해 주세요” 농협 전남본부와 농협 광주본부 임직원들이 24일 오전 광주송정역을 찾아 설 귀경객에게 ‘풍광수도’와 ‘빛남달쌀’ 등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나눠주며 ‘고향사랑기부제’ 동참을 당부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영암·목포·해남에 개조 전기차 제작·실증 기반 구축

‘규제자유특구’ 지정 내년까지 155억 투입...모터 등 안전성 실증

전남도가 친환경 개조전기차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개조전기차 주행 안전성 실증 착수를 위한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지난해 전남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가 지정됨에 따라 영암군(제작 및 실증), 목포시·해남군(주행 실증) 일원에 올해부터 2년 모두 155억 원을 투입해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이 구축된다. 개조전기차 제작·실증 기반이 구축되면 전남지역 소재 알비티모터스와 한국자동차연구원 등 12개 기업·기관이 함께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개조 시 이뤄지는 모터, 배터리, 프레임 보강 등으로 중

량 변화에 따른 주행 안전성을 실증하게 된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규제자유특구 최종 사업계획서를 이달 말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제출한 뒤 협약을 하고 실증 기간이 끝나는 내년까지 총 27대의 개조전기차를 제작할 예정이다. 주행 실증을 통해 차량의 성능 및 안전성 평가법 개발과 주행 데이터를 확보할 계획이며, 주행시험평가 시 교통안전공단과 협의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개조전기차 시장 규모가 2030년까지 택배화물차량·운전면허획득 노후차 등 국내시장 7400억원, 동남아 수출 중고차 및 고부가 가치 장

출이 가능한 클래식카·캠핑카 등 6150억원 등 총 1조355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전남도가 연간 1500억원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진길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으로 전남도가 관련 기업 집적화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가속화함으로써 개조전기차산업을 미래 성장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며, 기업이 규제 제약 없이 자유롭게 신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진출에 도전하도록 각종 규제를 유예·면제한 특별 구역이다. 지정되면 ▲재정지원 및 세금감면 ▲규제특례 적용(신속확인실증특례임시허가) ▲규제유예 및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 하늘’ 지난해 관측 이래 가장 청명

초미세먼지 나쁨 26일→15일 저공해차 전환 등 정책 주요

지난해 광주 하늘이 초미세먼지 관측 이래 가장 맑고 청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는 초미세먼지 등급 일수 감소 폭도 전국에서 가장 컸다. 이는 저공해차 전환 등 다양하고 지속적인 대기질 전환 사업과 중국발 초미세먼지 감소 등이 어우러진 결과물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17㎍/㎥이었다. 이는 2021년보다 1㎍/㎥이 개선된 수치로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래 가장 낮았다. 광주의 초미세먼지 ‘나쁨’ 등급 이상 일수는 2015년 72일에서, 지난해에는 15

일로 개선됐다. 이는 2021년 26일보다도 11일이나 줄어든 것으로,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초미세먼지 농도(㎍/㎥) 등급은 0~15 좋음, 16~35 보통, 36~75 나쁨, 76 이상 매우 나쁨이다. 광주시는 다양한 대기환경 개선사업, 기상 조건, 중국발 초미세먼지 감소 등으로 대기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저공해차 전환 지원사업,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및 비상저감조치 등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엔 중국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도 봤다.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평균 52㎍/㎥에서 지난해에는 28㎍/㎥로 줄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도심 속 야생동물 1년간 754마리 구조

광주 야생동물구조센터 개소 4년

광주시가 지난해 도심에서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 야생동물 745마리를 구조한 것으로 집계됐다. 24일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구조된 천연기념물 팔색조 등 야생 동물 가운데 252마리는 자연으로 돌아갔다. 팔색조(3마리) 외에도 수리부엉이(2마리), 원앙(8마리), 황조롱이(18마리), 소쩍새(7마리), 새호리귀(1마리) 등 천연기념물이나 멸

종위기종도 상당수 포함됐다. 야생동물 번식 기간인 3~8월 어미 동물을 잃은 경우가 346마리로 가장 많았으며 건물 유리창 등 충돌 사례가 134마리로 뒤를 이었다. 치료돌봄 후 방생된 252마리 중에는 지난 5월 도심길 큰 나무치기 등 수목정비로 동자를 잃은 어린 쇠백목 62마리가 포함됐다. 광주 야생동물구조센터는 2019년 개소 후 130종, 2061마리를 구조했으며 이 가운데 681마리를 자연 품으로 돌려보냈다. /박진표 기자 lucky@

공중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 설치

광주시 22억 들여 6곳 신축

광주시는 “올해 22억을 들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중(개방) 화장실 6곳을 신축하고, 남자 화장실에도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또 낡은 공중화장실을 개보수하고, 민간 개방화장실 지원사업, 편의용품 및 위탁관리비 지원

등도 추진한다. 광주시는 안전 공중화장실 확보를 위해 연 2회 관할 경찰서, 자치구 등과 합동으로 화장실 내 불법촬영 물레카메라 설치 여부 및 비상벨 작동 여부 등도 점검한다. 또 적외선카메라 및 전파탐지기를 이용해 환풍구 등 의심 위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3200여 건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장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묘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 상담문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